AI 활용법

혼자 일하지만, AI 비서들과 함께 일합니다

포근한테디 · 14분 전 URL 복사 통계



역할별 활용 구성도입니다. 기존 소개 이미지의 제목·삽화를 활용해 재구성했으며, 모든 도구가 자동 API로 연결돼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AI 매니저·업무 자동화·클라우드·웹서비스 개발까지, 나만의 디지털 업무팀을 구축한 이야기

이 글은 「2026 전국민 AI 활용사례 공모전 시즌3」의 '업무 생산성 개선을 위한 AI 활용' 사례로, 2026년 10월 29일 기준의 실제 활용 경험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AI에게 업무별 역할을 나누다
2. Discord·Zapier·Notion으로 업무를 연결하다
3. 반복적인 콘텐츠 작업도 AI에게 맡기다
4. AI와 함께 실제 웹서비스를 개발하다
5. AI가 완료했다고 말해도 직접 확인합니다
6. 무엇이 실제로 달라졌을까요?
7. 누구나 자신의 AI 업무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AI에게 질문하는 것에서, AI와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

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여러 사업 프로젝트와 업무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개발과 유지보수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검토, 공모전 준비, 일정 관리, 구직 정보 탐색, 콘텐츠 작성까지 서로 성격이 다른 일을 병행합니다.

해야 할 일이 늘수록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공모전 하나만 준비해도 공고를 찾고 참가 자격을 확인한 뒤 마감일과 준비할 일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웹사이트 역시 기능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테스트와 배포, 오류 수정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ChatGPT에 질문하거나 필요한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다 매번 질문을 새로 만드는 대신, 반복되는 일을 맡는 AI 비서에게 역할을 나눠 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목표는 AI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결과를 확인할지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디지털 업무팀은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

1. AI에게 업무별 역할을 나누다

먼저 Grok Bot을 활용해 업무별 AI 매니저를 구성했습니다. 같은 AI에게 모든 일을 한꺼번에 요구하기보다 목적과 확인할 기준을 나누었습니다.

- **공모전 헌터:** 관심 분야의 공모전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참가 자격과 마감일을 정리해 Discord로 알려줍니다.
- **공모전 매니저:** 제가 참가할 공모전을 고르면 공고문을 확인하고 준비할 업무와 일정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 **개인 스케줄 매니저:** Discord로 전달한 업무를 날짜와 중요도에 따라 분류해 Notion에 기록하고, 오전과 저녁에 일정을 리뷰하도록 구성했습니다.
- **공고문 Bot:** 개발·교육·프리랜서 업무와 관련된 채용공고를 찾아 조건에 따라 구분하고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정보를 정리하는 일과 결정을 내리는 일은 구분했습니다. 공모전에 참가할지, 어떤 업무를 먼저 할지, 실제 채용공고에 지원할지는 제가 판단합니다. AI에게 맡긴 것은 조사와 정리, 그리고 제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다시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

2. Discord·Zapier·Notion으로 업무를 연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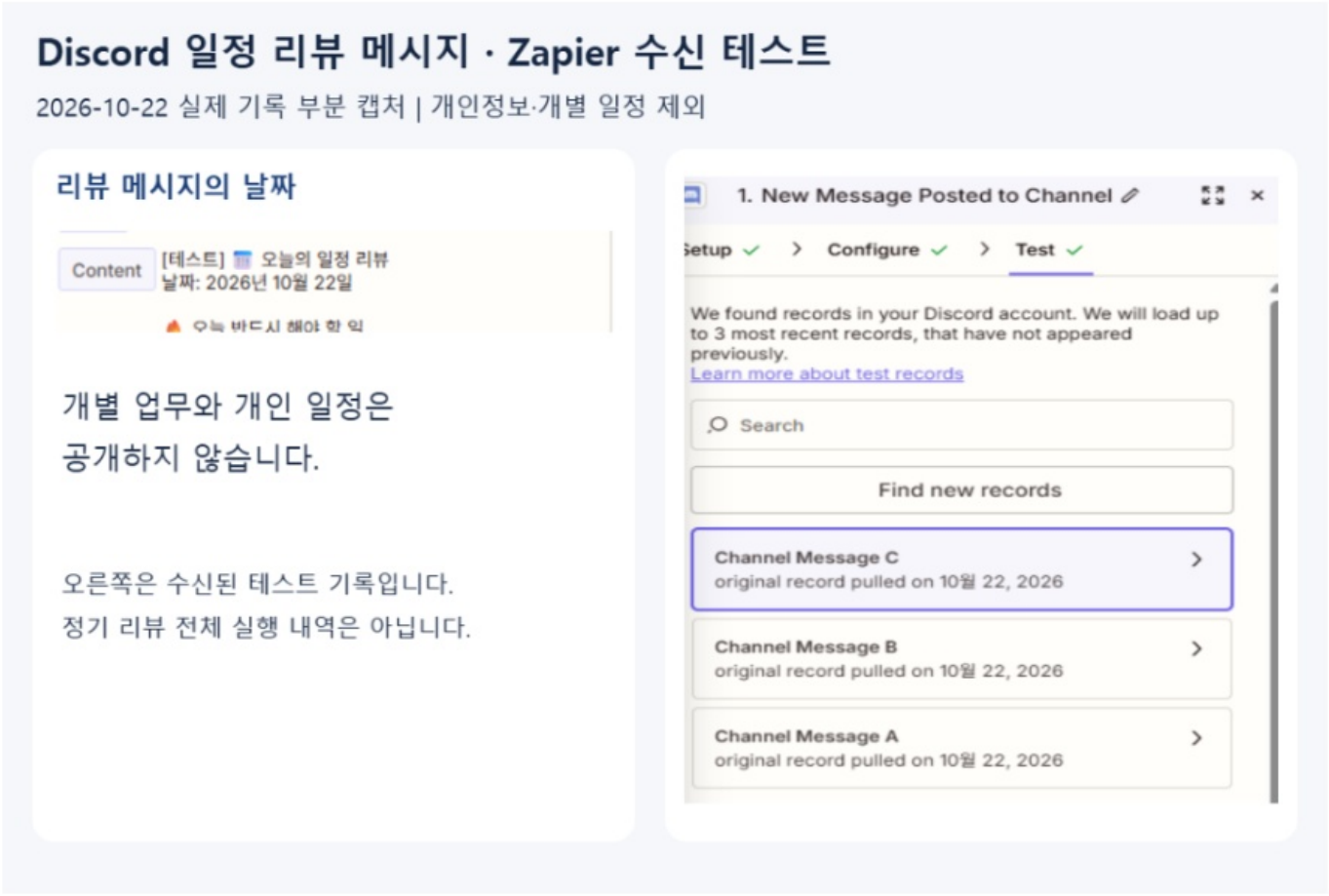
AI 비서가 찾은 정보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Discord를 업무를 전달하는 창구로, Notion을 일정과 업무를 기록하는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Zapier는 서로 다른 서비스 사이에서 메시지와 데이터를 전달하는 연동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Discord에 해야 할 일을 자연어로 입력하면, 구성한 자동화 경로를 통해 스케줄 매니저가 내용을 해석하고 Notion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말하듯 업무를 전달하되 기록은 정해진 분류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날짜가 없거나 중복일 가능성이 있는 업무, AI가 확신하기 어려운 분류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잘못 판단한 내용을 조용히 확정하는 것보다, 사람이 다시 볼 수 있게 남기는 편이 중요했습니다.



AD
비전공자도 로봇 기획자로 30명 모집
기획부터 구현까지 배우는 비전공자 스페셜 과정
실물 로봇 실습과 포트폴리오, 11월 15일 마감
두산로보틱스
더 알아보기



2026년 10월 22일 Discord 일정 리뷰 메시지를 Zapier가 수신한 테스트 기록 일부입니다. 개별 일정은 제외했으며, 정기 리뷰 13회 전체의 실행 증빙은 아닙니다.

업무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했습니다. 모든 일이 급해 보이는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살펴볼지 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우선순위 1**: 수익이나 중요한 사업 운영과 연결된 업무
- **우선순위 2**: 일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업무
- **추후업무**: 당장 처리할 필요는 없는 업무
- **LIFE**: 개인 생활 관련 일정
- **분류대기**: AI가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
- **업무보류**: 일시적으로 중단한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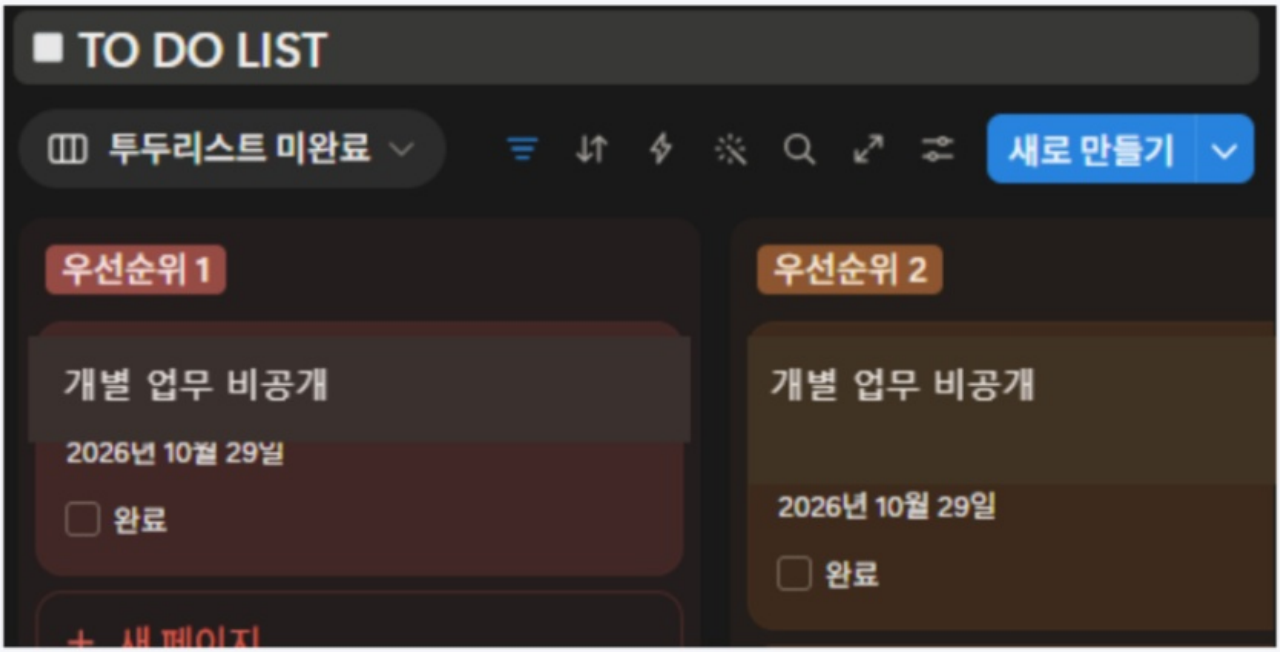
처음부터 매끄럽게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Notion 워크스페이스를 읽거나, 어제 미완료로 남은 업무를 오늘 일정으로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수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Discord에서 AI가 보낸 메시지가 다시 자동화 입력으로 들어가 중복 실행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자동화에서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만큼 **잘못된 실행을 막고, 사람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개인 스케줄 매니저는 2026년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오전·저녁 리뷰를 총 13회 실행했다고 자체 집계했습니다. 이 수치는 매니저의 실행 보고에 따른 것이며, 업무 완료율이나 절감 시간을 측정한 결과는 아닙니다.

Notion 실제 업무 보드 · 우선순위 분류

개별 업무 제목을 가린 실제 화면 일부 · 2026-10-29 확인



2026년 10월 29일 확인한 실제 Notion 업무 보드 일부입니다. 우선순위와 날짜를 남기고 개별 업무 제목은 가렸습니다.

---

3. 반복적인 콘텐츠 작업도 AI에게 맡기다

반복적인 자료 조사와 블로그 작업에는 Aside AI 브라우저를 활용했습니다. 자료를 찾고 원고를 정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미지 구성과 실제 편집기 입력, 발행된 게시물 확인까지 브라우저 안에서 작업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이미지가 중복되거나 표가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편집기에 보이는 내용과 실제 공개 페이지가 다르게 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이나 발행이 끝났다는 보고만 믿지 않고 공개된 화면을 다시 열어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별도의 자동화 프로젝트인 AutoBlog는 Codex와 함께 개발했습니다. GitHub Actions라는 정기 실행 기능을 이용해 AI 콘텐츠 초안과 품질 보고서를 생성하고 Discord로 알림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는 Aside가 실제 브라우저에서 편집·게시하는 작업과는 구분되는 경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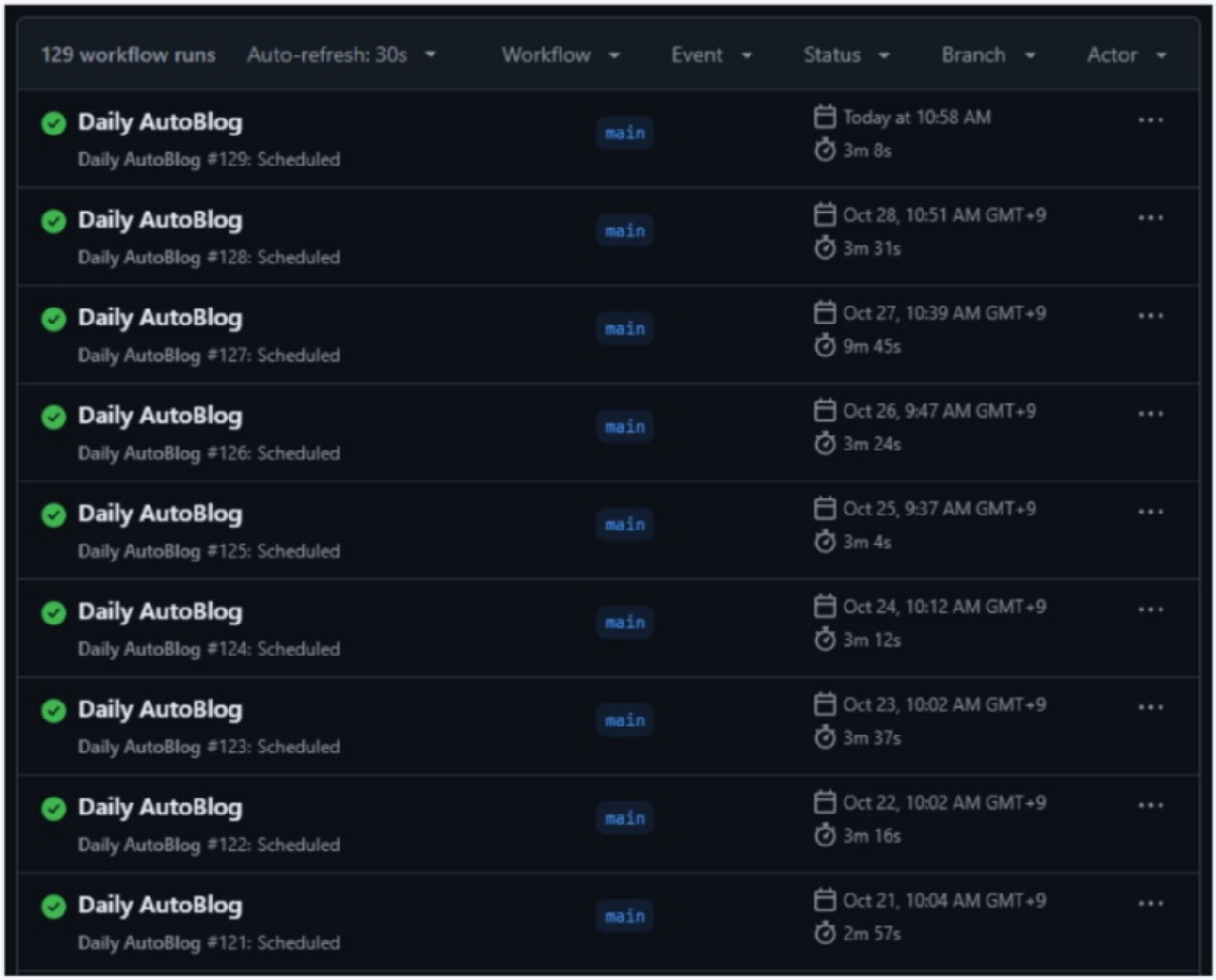
2026년 10월 29일 확인한 AutoBlog의 GitHub Actions **최근 25개 실행에는 모두 성공 표시**가 있었습니다. 확인 범위는 실행 번호 #129부터 #105까지입니다.

이 결과는 초안 생성과 알림 등을 수행하는 자동화 작업의 실행 상태입니다. 해당 초안 25개가 **모두 외부 블로그에 게시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반복 작업의 실행과 실제 게시 결과를 같은 성과로 묶지 않으려고 합니다.


AD
NEW 네스프레소 버츄오 업
아이스&라테 모드로 커피의 맛과 풍미를 UP
3초 예열로 기다림 없이, 아이스 커피까지 완벽하게
네스프레소
더 알아보기

AutoBlog · 실제 GitHub Actions 실행 기록

최근 25개 실행(#129~#105) 성공 확인 · 아래는 목록 상단 일부



2026년 10월 29일 확인한 AutoBlog의 GitHub Actions 실행 목록 일부입니다. 최근 25개 실행의 성공 표시를 대조했으며, 외부 블로그 25건 게시를 뜻하지 않습니다.

---

4. AI와 함께 실제 웹서비스를 개발하다

AI는 업무를 정리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ChatGPT로 기획과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Cursor·Claude Code·Codex로 코드를 구현하거나 수정했습니다. 테스트와 서버 배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클라우드 배포는 제 PC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서버 환경에 프로그램을 올리는 과정입니다.

패브링: 팀과 함께 만든 자투리 원단 거래 플랫폼

패브링은 팀 프로젝트입니다. 원단 등록과 거래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했고, 프런트엔드와 백엔드를 배포했습니다. 프런트엔드는 사용자가 보는 화면이고, 백엔드는 데이터와 요청을 처리하는 서버 쪽 프로그램입니다.

Cursor를 활용한 개발, Claude 기반 AI 등록 보조 기능, Codex를 활용한 배포와 연결 수정 등 단계에 따라 도구를 달리 사용했습니다. 최종 결과물은 공모전 본선에서 시연했으며 수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결과를 제가 혼자 완성한 프로젝트의 성과로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BusinessOS: 사업·목표·업무를 한곳에서 보기

BusinessOS는 여러 사업과 목표, 해야 할 일, 아이디어를 정리하려고 Codex와 함께 만든 웹서비스입니다. 관리 화면과 API를 개발하고 클라우드에 배포했습니다. API는 화면과 서버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고 서비스 화면에서 표시되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매일 AI가 모든 사업을 자동 분석하고 의사결정하는 시스템까지 완성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운영 정보를 정리하는 도구와 사업 판단을 대신하는 시스템은 다릅니다.

MONS: 기능 개선과 장애 원인 확인

기존 웹서비스 MONS를 개발·운영하는 과정에서도 Cursor, Claude Code, Codex를 활용했습니다. AI가 작성한 코드를 검토하고 기능을 수정했으며, 배포 뒤 API 연결 문제와 관리자 화면 오류가 생기면 어느 단계에서 막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일부 장애는 해결했지만 모든 관리자 기능이 정상 복구됐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코드 수정, 서버 반영, 실제 화면의 정상 작동은 각각 확인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을 경험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합지졸의 업무관리 기능, LifeOps, EmailHub, HomeSearch 등 개인 업무를 돕는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도구마다 개발·배포·활용 검증의 상태가 다르며, 모두가 완벽하게 통합된 환경은 아닙니다. 각각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제 배포를 경험해 왔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패브링 · 실제 공개 웹서비스 접속 화면

소개 영역만 캡처 · 체험 계정 안내와 입력란은 제외



실제로 접속한 패브링 공개 웹서비스의 소개 영역입니다. 체험 계정 안내와 입력란은 제외했으며, 이 화면만으로 모든 기능이나 실제 거래를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5. AI가 완료했다고 말해도 직접 확인합니다

AI와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원칙은 **'AI의 완료 보고와 실제 작업 완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능을 구현했다고 해도 화면에 나타나지 않거나, 서버에 배포했다고 해도 API 주소가 잘못돼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정 자동화에서는 중복 등록과 잘못된 분류가, 콘텐츠 작업에서는 저장 내용과 공개 결과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같은 명령만 반복하기보다 문제가 생긴 단계를 나눠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입력은 전달됐는지, 데이터는 저장됐는지, 서버가 응답하는지, 사용자가 보는 화면에 반영됐는지를 구분해 살펴봤습니다.

공모전 참가 여부와 개발할 기능, 공개할 내용은 제가 결정했습니다. AI는 실행을 도울 수 있지만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검토하며 책임지는 역할은 여전히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

6. 무엇이 실제로 달라졌을까요?

이전에는 제가 하나씩 찾아보고 매번 질문해야 했던 일 가운데 일부를, 이제는 AI 비서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보를 찾는 역할과 기록하는 역할, 콘텐츠 초안을 만드는 역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이 나뉘었습니다.

제가 남긴 결과는 막연히 편리해졌다는 느낌만은 아닙니다. 반복 실행 기록이나 실제 개발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 공모전 탐색과 일정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실행하도록 구성한 경험
- Notion에 업무를 등록하고 날짜와 우선순위로 분류한 기록
- 채용정보를 조건별로 탐색하고 Discord로 보고받는 흐름
- AutoBlog가 콘텐츠 초안을 반복 생성하는 실행 기록
- BusinessOS·패브링·MONS 등 웹서비스를 개발하고 배포한 결과물
- 오류를 발견한 뒤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수정한 과정

다만 **시간 절약이나 비용 절감, 매출 증가를 수치로 측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행 횟수가 늘었다고 업무 성과가 그만큼 좋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도 일부 기능은 반복 운영 중이고 일부 도구는 배포 이후 활용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통합 AI 비서라기보다, AI 비서와 개발 도구를 실제 업무에 적용해 결과물을 만들고 조금씩 연결해 가는 과정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

7. 누구나 자신의 AI 업무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잡한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자주 반복하는 일을 하나 고른 뒤, AI에게 맡길 부분과 직접 확인할 부분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심 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거나 해야 할 일을 일정표에 정리하고, 작성한 문서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도 시작점이 됩니다. 업무가 늘어나면 기록 도구와 연결하고, 개발이 가능하다면 자신에게 맞는 웹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AI를 몇 개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결과를 확인하고, 무엇을 직접 결정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나만의 디지털 업무팀을 완성해 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AI에게 질문만 하지는 않습니다. 역할을 맡기고 결과를 검토한 뒤, 함께 다음 작업을 진행합니다.

혼자 일하지만,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태그

#AI활용사례 #전국민AI활용사례공모전 #업무생산성 #AI비서 #1인개발자 #업무자동화 #디지털업무팀 #GrokBot #AsideAI #ChatGPT #Cursor #ClaudeCode #Codex #Notion #Discord #Zapier #GitHubActions #클라우드개발 #서이추 #서이추환영